

# SONG JAE HO

6 June - 11 July 2009

송재호\_inpressionist 전



Pikipikipiki, oil on canvas, 116.8 x 91 cm, 2007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품위 있는 놀이' 라고 이야기하는 송재호는 꾸준히 회화작업을 해오면서 음악적인 소리가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느껴지도록 표현한다. 작가의 섬세한 감성은 화면 안에서 시각적 언어로 변모해 절제된 붓터치와 색채를 통해 고유하고 독립된 리듬을 만들며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한다.

PUBLIC ART